

입양 보낸 딸에게 전재산을

40여 년 전 어려운 생활고 탓에 친딸을 입양보내야 했던 60대 여성이 수십 년 동안 딸을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다며 딸을 찾아 나섰다.

3일 '극복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에 사는 여성 왕원취안 씨(64세)는 40여 년 전 생후 8개월된 딸을 베이징의 한 가정에 입양보냈다. 1981년 남편과 결혼해 이듬해 5월 딸을 출산했으나, 남편이 폭행·강도 사건에 휘말려 투옥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찾아온 극심한 생활고 때문 이다.



▲ 전 재산을 입양 보낸 딸에게 상속해 주고 싶다며 사연을 공개한 왕원취안 씨 (오른쪽)와 그의 딸의 입양 보내기 전 모습. 사진=6do.world

소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죄책감 탓에 아이를 낳지 않았고, 그동안 저축한 100만 위안(약 14만 달러) 전 재산을 딸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남편은 딸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21년 돌연 사망했다. 사망 직전 왕 씨의 남편은 "딸에게 우리가 모은 돈을 모두 물려줘야 한다."고 유언을 남겼고, 그의 뜻을 따라 왕 씨는 현지 매체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해 공개적으로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항저우 공안국이 운영하는 친척찾기 센터에서 왕 씨와 그의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채취한 유전자DNA를 국가 인적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1998년 왕 씨의 남편은 17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출

'너무 다른' 쌍둥이 딸, DNA 검사 결과는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shutterstock

한 여성이 낳은 쌍둥이 자매의 아빠가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2일 베트남 매체 VTC 등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를 둔 남성 A씨는 두 딸이 자랄수록 서로 외모가 달라지는 것을 보며 의아했다. 2년 전 아내가 출산했을 당시 의사는 "생김새가 다른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알렸다.

A씨는 딸들이 이란성 쌍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딸의 외모에 닮은 점이 없어서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검사 결과를 알고 충격에 빠졌다. 딸들 중 한 명의 DNA는 자신과 일치했지만, 다른 한 명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병원에서 딸이 다른 신생아와 바뀌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내가 딸들의 친모가 맞는지 다시 한번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두 딸의 DNA는 아내와 일치했다. 딸들의 엄마는 같지만, 아빠는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씨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DNA분석센터 소장은 "매우 드문 경우지만의 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엄마의 난자 두 개에 각각 다른 남성의 정자가 수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요 뒤집어쓰고 콘서트 간 '찐팬'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에 한 팬이 담요를 뒤집어쓴 채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 담요를 뒤집어쓴 채 지역 방송 기자와 인터뷰 중인 A 씨. 사진=WKRC-TV 뉴스 화면 캡처.

지난달 30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페이코 스타디움에서 테일러의 6번째 투어 '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 공연이 열렸다. 앞서 하루 전인 29일 밤부터 스타디움에서 공연 티켓이 판매됐고 수천 명의 팬들이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

테일러의 공연을 앞두고 티켓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선글라스를 착용한 한 팬이 눈길을 끌었다. 기괴한 모습

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A씨는 지역 방송 WKRC-TV와 인터뷰했다.

A씨는 "콘서트에 오려고 병가를 냈다"며 "카메라에 찍히면 상사에게 들릴까 두려워 담요를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이어 "루이빌에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꽤 먼 거리를 운전해 왔다. 새벽 2시 45분쯤부터 왔다"고 밝혔다.

그는 "테일러는 내게 정말 의미 있는 가수"라며 "내 딸의 이름을 테일러라고 지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공연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나는 내수빌에서 열린 공연에 갔었기에 이번 공연은 거의 딸을 위한 것"이라고 팬심을 드러냈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